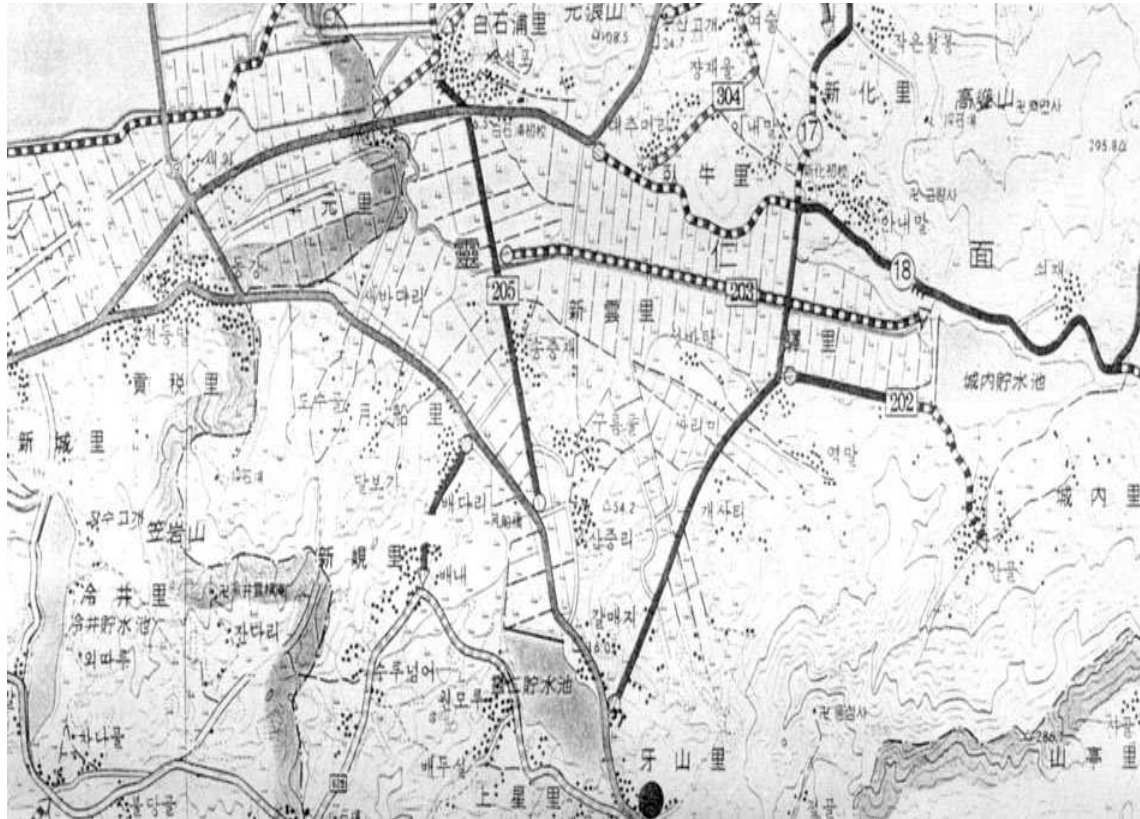


월선리·月船里

영인면의 한 마을이며 월선리는 작게 두군데로 구분되는데 달보기, 배다리, 짐골, 도숫골, 새 배다리로 나뉜다. 마을의 총인구는 410명 이고, 세대수는 총 111세대로 주민들의 76%가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월선리는 본래 아산군 현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월건리, 선교리를 병합하여 월건리의 "월"과 선교리의 "선"의 이름을따서 월선리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되었다.

<월선리 위치도>



⊗ 배다리, 달보기, 짐골, 도숫골, 새배다리마을

배다리(월선 1리) 마을은 월선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서 예전에는 조수가 이곳까지 통하여 배가 드나드는 선창이었다. 그래서, 배다리(옛 지명: 선교리)라 부르게 되었다. 비교적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근래에 생긴 지명으로 비석거리라고도 하며 전통한옥을 잘 보전 관리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다.

달보기(월선2리) 달보기(월건리)라고도 불리며 배다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서 뒷산에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망월을 보는 터가 있다 하여 달보기라 불리게 되었다. 월선 2리는 달보기와 짐골 도숫골 새배다리 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당시 월선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월선1리 배다리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2km 지점에 위치하며 인주면 공세리와 접해 있다. 또한 온양에서 삽교호 경유 당진방면과 아산군 경유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국도 39호선이 마을 앞을 관통하므로 교통이 편리하다. 경도는 126-56-40이고 위도는 36-52-10에 위치해 있다.

월선2리(달보기) 마을은 영인면 아산리 39번 도로를 타고 5분 가량 가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거리는 약 500m정도이며 이 마을 앞에는 한참 4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길을 따라 가면 아산호 방조제가 나온다. 경도는 126-56-00이고 위도는 36-52-20에 위치해 있다.

2) 현 황

배다리 마을은 현재 남자 87명, 여자 80명으로 총 167명이 한 마을에 살고 있으며 53가구중 37가구가 농업에 종사한다. 달보기마을은 남자 128명, 여자 115명으로 총 243명이다. 총 58가구중 47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배다리	167명	87명	80명
달보기	243명	128명	115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기타
배다리	100%	70%	10%	20%

달보기	100%	81%	10%	9%
-----	------	-----	-----	----

- 농경지 현황

농경지현황에서는 배다리마을은 밭이 54ha로 많고 달보기마을은 논이 31ha로 논이 많게 나타났다. 농기계보유현황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배다리	70ha	16ha	54ha
달보기	49ha	31ha	18ha

- 농기계보유 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배다리	26대	10대		4대	5대	15대
달보기	25대	19대		3대	6대	13대

- 문화시설

문화시설에는 배다리, 달보기, 두마을모두 회관, 앰프, 악기가 마련되어 있었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 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배다리	1채	1개	1조	
달보기	1채	1개	1조	

- 연령분포

연령분포에서는 배다리마을이 60대가 가장 많고 달보기마을도 60대가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배다리	10명	15명	12명	10명	20명	40명	45명	15명	
달보기	20명	47명	15명	20명	31명	51명	61명	13명	3명

- 성씨별분포

배다리 마을은 장흥임씨가 19가구인 44%로 제일 많이 살고 있으며 달보기 마을은 이씨가 33% 많이 살고 있었다.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임씨	정씨	조씨	기타
배다리		28%	44%	7%	8%	13%
달보기	19%	33%	4%	6%	1%	37%

- 학생분포

학생분포에서는 배다리마을의 총학생수가 25명이고 달보기마을의 총47명이다.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배다리	10명	8명	5명	2명

달보기	18명	13명	11명	5명
-----	-----	-----	-----	----

- 최고령자

배다리 마을에서는 남연이 할머니로 91세이고

달보기 마을은 장옥순 할머니가 96세이다.

- 호당평균소득

배다리 마을은 호당평균소득이 년/3,000만원 정도이며

달보기 마을은 호당평균소득이 년/1,500만원이다.

3) 자연 경관

배다리 또는 선교리라고도 하며 비교적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농촌 마을이다. 달보기 마을에는 산봉산이 있다. 산봉산은 달보기 마을 서쪽에 있는 산으로 공세포에서 드나드는 뱃사람들이 뱃길을 떠날 때 순풍을 빌어 제사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는 신봉사가 있었다.

4) 마을 변천 과정

배다리는 본래 아산군 현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월건리, 선교리를 병합하여 월건리의 "월"과 선교리의 "선"의 이름을 따서 월선리라 하여 영인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현재 장흥 임씨가 가장많은 53가구중 19가구가 살고 있으며, 장흥임씨 조상인 임옥의 영정을 모신 사후에 후손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그 다음 많이 사는 성씨는 경주 이씨, 온양 정씨이다.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성씨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살고 있다. 토착성씨로는 장흥 임씨와 온양정씨가 약 300년의 역사로 오랫동안 살고 있으며 온양정씨의 시조묘와 재실이 있다. 달보기 마을에는 장흥 임씨가 제일 먼저 터를 잡았으며 김해 김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전주 이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6) 지 명

배다리 : 배다리는 월선리에서 가장큰 마을로서 예전에는 조수가 이곳까지 통하여 배가 드나드는 선창이었다.

달보기 : 배다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서 뒷산에 해마다 정월 보름에 망월을 보는 터가 있다.

도숫골 : 달보기 마을의 뒤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신봉산 : 달보기 마을 서쪽에 있는 산. 공세포에 드나드는 뱃사람들이 뱃길을 떠날때 순풍을 빌어 제사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는 신봉사가 있음.

짐 골 : 도숫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신봉사터 : 달보기 서쪽 신봉산에 있던 신봉사터.

새배다리 : 전에는 조수가 배다리까지 통하여 배가 드나들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수중보를 만든 이후로 조수가 끊기고 거머니들에 동네가 생기자 배가 새로 접안할 수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불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굴 산위산 : 산에 바위가 많고 예전에는 바다에서 나는 조그만 굴이 많이 있어 굴 바위산이라 한다.

매봉산 : 매의 부리처럼 생겨서 매봉이라고 한다.

(이규갑 일가의 묘소와 흥국순의비가 있다.)

비석거리 : 1968년에 성주이씨 이병준자선비를 세운뒤에 외부인들이 비석과 월송정을 보고 부르던 것이 지명으로 와전되어 불리고 있다.

달보기포강 : 일제 강점기 말에 포강을 만들어 농사에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영인저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 쓸모가 없어졌다.

사우모선사 : 1978년 온양정씨 시조 위패를 모신 월선리 산7-3번지에 건축하였고, 4월과 10월에 제향을 한다.

영정각(影幀閣) : 영흥대도호부사(永興大都護府使)·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를 지낸 임옥(任

勳)의 영정(影幀)을 모셨고 제향일은 매년 음력 7월 25일이다. 애국지사 이규갑의 묘와 통정대부 이희도(이규갑의 아버지)의 묘도 있다.

월선리에서는 비가 많은데 다음과 같다.

- 분무원종일등공신 기적비
- 충국순의비
- 임희철 효자비
- 이병준 자선비
- 임광수 공적비

7) 전설

이 마을에서 전해지는 전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배다리에는 동계, 부녀회등 계모임이 있으며 매년 음력 7월 25일 이인좌 난의 반군 기습 공격에 대공을 세운 임옥의공을 기리며 임옥 영정각 앞에 자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달보기 마을을 배다리와 마찬가지로 동계와 부녀회가 있다. 달보기 마을에는 '아산 신평단'이 있다. 아산 신평단을 월선리 신평산 위에 있는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선원들이 배를 운항할 때에 신평이 불어지기를 이 신평단에서 빌곤 했었다. 그러면, 대개 감응이 있다 하여 정성껏 위하는 까닭에 산 이름을 신평산이라 하고 단명도 신평단이라 하였다. 지금은 미신을 타파하여 이 사단은 거의 폐지되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임희철(任熙喆)

자는 원집(元集)이요, 호는 탄은(灘隱)이며, 본관은 장흥이니, 분무공신 옥의 후손이다. 일찍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조모의 품에서 자랐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맛있는 음식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공양했다. 조모의 병환에 대변에 맛을 보면서 복두칠성을 우러러 빌었다. 병환이 위급해지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입에 흘려 넣어서 소생시켰으나, 3일만에 운명했다. 장례와 제례를 예법에 따라 치렀으며, 이 사실의 향유와 도백이 천거했다.

임옥(任勳) 1680~1736

본관은 장흥이며 자는 군포이다. 숙종 31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선전관을 거쳐 창성부사, 삼수부사, 영흥대도호 부사 등을 역임했다. 이인좌가 반란을 일으켜 반군 기습공격에 대공을 세운다. 후에 전라 좌수사를 지냈다.

10) 종교단체

이 마을에는 종교단체는 없으며 근교의 종교단체에 다니고 있다.

11) 공장현황

금강모방공업(주) 대표: 이금주 월선 156-1외12 생산품목 : 방모사

태성콘크리트 대표 : 원봉식 월선 산 57번지 생산품목 : 콘크리트

한피공업(주) 대표 : 이돈희 월선 302-5 생산품목 : 철선제품

상아정관 대표 : 윤석남 월선313-1 생산품목 : 자동차 배관용 금속관

12) 마을의 특성

이마을은 정통 한옥과 농가가 잘 보존이 된 마을로 특별할 것 없는 농촌이지만, 환경보전 운동에서부터 청결운동등을 실시하고 있는 등 마을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이다.